

|  |  |  |              |  |
|--|--|--|--------------|--|
| 제 목  | 국 문  | 한국인 유방암의 발생률에 관한 조사연구  |              |  |
|  | 영 문  | Incidence Estimation of Breast Cancer among Koreans  |              |  |
| 저 자 및 소 속  | 국 문  | 안윤옥 <sup>1)</sup> , 유근영 <sup>1)</sup> , 박병주 <sup>1)</sup> , 이무송 <sup>2)</sup> , 김동현 <sup>1)</sup> , 신명희 <sup>1)</sup> , 노동영 <sup>3)</sup> , 박태수 <sup>4)</sup><br>1)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2)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3)서울의대 일반외과학교실, 4)의료보험관리공단  |              |  |
|  | 영 문  | Yoon-Ok Ahn, Keun-Young Yoo, Byung-Joo Park, Moo-Song Lee, Dong-Hyun Kim, Myung-Hee Shin, Dong-Young Noh, Tae-Soo Park<br>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br>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              |  |
| 분 야  | 종 양  | 발 표 자  | 이 무 송 (일반회원) |  |
| 발표 형식  | 구 연  | 발표 시간  | 15분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 0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  |              |  |
| <p><b>1. 연구 목적</b></p> <p>유암의 발생률을 전국 규모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추정하며,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유암 발생 수준을 파악한다.</p> <p><b>2. 연구 방법</b></p> <p>1988년-1989년 2년간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 수혜 인구를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암발생률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 인구에서 2년 동안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ICD-9) 상 유방의 악성 신생물 (ICD-9 174, 175), 유방 양성 신생물 (ICD-9 217), 유방의 장애 (ICD-9 610, 611), 상세불명 부위 및 속발성 악성 신생물 (ICD-9 195~199), 유방 및 비뇨 생식계의 정상소재 암 (ICD-9 233)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람을, 의료보험공단의 보험 수가 청구 자료로부터 파악하였다. 진단명과 진단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각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보험 수가 청구건수가 2년간 5건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된 의무기록 요약지를 해당 의료기관에 3차에 걸쳐 발송, 담당 의사에 의하여 의무 기록을 요약하였으며, 6건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의무기록을 요약하였다. 수집된 의무기록 요약 자료를 일반외과 전문의가 검토하여 진단명 및 발병 시기를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1988년 7월부터 1989년 6월까지 1년간의 한국인의 유암 발생률의 지역별, 병리조직학적, 부위별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연령별 발생률을 추정하고 표준화 발생률 등의 지표로써 우리나라 유암의 발생 수준을 국가간 비교하였다.</p> |  |  |              |  |

### 3. 연구 결과

1년간 유암 발생 환자는 총 244명이 확인되었다. 지역적인 분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출한 표준화 발생비는 강원도, 충청북도 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산, 경상남도 지역이 높은 발생 수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병리조직학적으로는 소견이 확인된 유암 예중 87.8%가 선관암(ductal carcinoma)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정상소재암(carcinoma in situ)이 4.5%였다.

발생한 유암의 부위별 분포는 좌, 우가 비슷한 수준이며, 오른쪽 유방의 외상부, 왼쪽 유방의 외상부가 각각 17.6%와, 19.3%로 가장 흔한 발생 부위로 나타났다.

연령군별 발생률의 양상은 20세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폐경기를 전후한 50-54세군에서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인 여성 유암의 조발생률은 10만명당 연간 8.82 (신뢰구간 8.41 - 9.23)으로 연간 약 1,780명의 유암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0-64세, 0-74세의 누적 발생률은 각각 0.17%, 0.20%였다. 조발생률을 세계보건기구의 세계 표준인구로서 직접 표준화한 표준화 발생률은 9.71로, 일본,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35-64세 인구의 표준화 발생률은 25.25로 추정되었다.

### 4. 고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의료보험공단 수혜인구를 대상으로, 2년간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의무기록을 확인함으로써, 표본의 규모 및 진단의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유암 발생률을 추정하는 데 적절하였다.

우리나라의 유암 발생률은 1988-1989년 현재, 국제적으로 발생 수준이 낮은 지역인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발생 수준에 비해서도 50% 정도이다. 발생 수준의 차이는 유전적, 생활 습관적 변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러한 낮은 발생 수준이 나타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발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에도 연령별 발생 양상이 서구 선진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점은 발생 기전 및 위험 인자 등이 유사함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향후 유암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암의 발생 위험요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